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추가 기획 감독 착수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업무상 횡령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 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 ②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원이 퇴사를 예고하자,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 지급하고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요로 임금상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지청장 연창석)은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전액불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4.14.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청은 지난 3.31.부터 문제가 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2개소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확인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감독 이후에는 지역 내 협·단체 및 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 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청주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노동기준감독과	책임자	과 장	구재천 (043-299-1150)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지은 (043-299-1255)